

주유소에도 전기차 충전기… 자율주행로봇 공원 배달 허용

정부, 2차 경제규제 혁신과제 발굴
개인 설치 충전기 공유서비스 가능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 전기 판매도
60kg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스

앞으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쉬워진다. 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돈을 받고 공유해 수익도 올릴 수 있다.

1.5t 이하만 가능했던 택배용 화물차 적재량도 2.5t까지 확대된다. 공원에서는 자율주행로봇이 배달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으로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2차 경제규제 혁신 대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총 36건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우선,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주유소에는 주유설비나 세차장 등 부대업무 시설을 제외하고 다른 건

축물은 설치가 불가능하다.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충전설비와 주유기 를 1m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정부는 주유소 배치 구도, 안전조치 등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2 월까지 충전 인프라 공유플랫폼 임시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또, 전기차 충전소에

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하거나 판매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수소차 충전소 또한 충전대상에 자동



서울시내 한 전기차충전소 모습.

/뉴스스

차와 함께 지게차 등 실내물류운반기계 도 가능토록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수소차 충전시 직원만 가능했다면 앞으로 안전성 검증을 거쳐 셀프충전소 운영도 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을 1.5t에서 2.5t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조건은 택배사업자 직영이거나 6년 이상 택배업무를 한 개인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시외버스로 운송가능한 작은 화물 규격도 현행 부피 4만cm³, 총중량 20kg 미만에서 부피 6만cm³, 중량 30kg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적재함 용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소화물 운송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로봇은 중량 60kg 미만이면 공원 내 출입을 허용해 무인 배송과 배달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원에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배

송, 배달이 가능해져서다.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도 허용해 출퇴근 불편과 영업 손실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자가 원격으로 음주 측정도 가능해진다.

추 부총리는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해서 바꿀 것”이라며 “재정이 아닌 규제혁신으로 만드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1면 ‘힌남노 전국 영향권’ 서 계속

제주 항공편 무더기 결항
대통령실 24시간 비상근무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만들고, 폐윤활유 재생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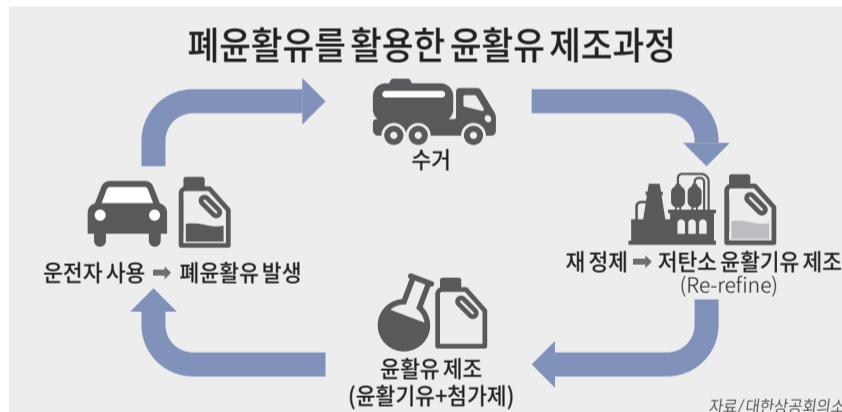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
탄소 감축 등 위한 규제특례 승인
롯데정밀화학, 울산사업장에
암모니아 수소 추출설비 구축

해외에선 되는데 국내에선 안 되는 사업에 ‘샌드박스 우회로’가 뚫린다. 암모니아로 청정 수소를 만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설비가 국내에 들어서고, 사용 후 폐윤활유를 새 윤활유로 재생시키는 기술도 처음으로 시도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용 핵심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탄소감축과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 특례 14건을 승인했다.

구체적으로는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롯데정밀화학)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SK루브리컨츠)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농심 등 6개사)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한국가스공사·그리즈워드) ▲인천공항 입국 훈련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굿럭컴퍼니) ▲파워뱅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너지캠프)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에브리바이크)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이대서울병원 등 2개사) 등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포터블 방사선 촬영 장치 활용 의료 서비스, 수소 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충전 및 운항시



험 등 11건도 함께 승인, 총 25건을 승인했다.

◆암모니아 분해해 청정 수소 생산

앞서 14가지 중 대표적으로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은 롯데정밀화학이 국내에 입점 시킬 계획이다. 암모니아(NH₃)를 수소(H₂)와 질소(N₂)로 분해한 뒤, 질소를 제거해 수소(H₂)만 추출해내는 설비다.

암모니아는 수소를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고,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액체 상태를 만들 수 있어 저장·운송이 쉽다. 또한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탄소도 배출되지 않는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생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호주는 한국, 일본 자동차 기업과 함께 암모니아를 활용해 생산한 수소를 수소차에 공급하는 시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선 설비를 지을 수 없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는 수소용품에 해당

해 제조허가와 검사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에 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조허가 및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탄소 배출 없는 청정수소 생산 및 대용량 수소 생산·저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롯데정밀화학은 설비구축에 앞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관계부처는 실증사업을 토대로 해당 설비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롯데정밀화학은 “울산사업장에 세계 최대규모인 1,000Nm³/h 급 파일럿 설비를 구축해 수소 추출 시스템을 우선 검증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확보해 2025년 이후 국산 설비 상용화를 추진해 향후에도 청정 암모니아·수소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QR코드로 식품정보표시 바꾼다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식품정보표시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QR코드가 그해법이다. 그동안 식품업계는 식품

정보표시 간소화를 위해 QR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식약처·대한상의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를 발표했고, 한 달 만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앞으로 용기나 포장지에는 식품에 관한 필수정보만 담되, 글자크기와 자간·장평을 키워 읽기 쉬워진다. 그 외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용기나 포장지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식품 정보 안내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식품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식품정보는 제품의 용기·포장에 표시돼야 하며, 식품정보를 QR코드로 표시하는 방식은 제한적이 다.

심의위는 “일부 표시사항을 QR코드로 제공해 확보되는 포장재 공간에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필수 표시사항을 확대하여 표시함으로써 가독성이 향상되며, 기존 포장재에 기재되던 표시 정보 외 다양한 정보를 QR코드를 통해 추가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사에서 기존에 판매중인 12개 제품부터 QR코드가 도입되며, 품목은 확대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태풍 경로 인근에는 최대 12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인다.

힌남노가 근접해오며 국내선 항공편 선제 결항이 이어지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 이후 이틀간 제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항공편이 모두 결항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태풍으로 5일 국내선 70편을 결항하고, 6일 31편을 결항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5일 제주로 출·도착하는 항공편 51편을 결항하고 여수편 6편을 결항해 총 57편의 국내선을 선제 결항한다. 6일에는 제주편 14편을 결항할 예정이다.

국내선 이동이 많은 저가항공사(LCC)들도 힌남노의 경로를 파악하고 결항을 결정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유지되고,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머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2003년 매미의 위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힌남노가 6일 새벽 한반도에 상륙이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5~6일,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면서 종합상황을 보고 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태풍피해를 우려해 부산에서는 6일 오전 첫 차부터 태풍상황 해제시까지 1~4호선 전구간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 각 시도교육청은 6일 고교를 제외한 대부분 학교의 등교를 중단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유치원, 초등학교는 ‘휴업’을, 중학교는 ‘휴업 혹은 원격수업’ 중 한 가지를 학교장 재량으로 택하도록 지시했다.

/한용수(세종)·박정익·허정윤 기자 hys@